

古稀 할머니 여고생의 '빛나는 졸업장'

“배움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잖아. 못 배운 걸 평생 억울해하다가 이런 학교가 생긴다기에 입학 결심을 했다. 내가 그렇게 그리던 졸업장을 받게 되다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뻐.”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할머니 여고생이 꿈에 그리던 고교 졸업장을 받는다. 오는 24일 졸업식을 갖는 광주 대신고등학교 최고령 졸업생 임정자(여·71·사천·광주시 서구 금호동)씨. 졸업을 일주일 앞둔 17일 교실에서 만난 임씨는 고희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꿈 많고 수줍은 여고생이었다.

“쉬는 시간에 수다 떠는 거 너무 재밌어. 학교 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구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정담을 나

24일 졸업 광주 대신고 임정자씨 사회복지사 꿈꾸며 송원대 진학

누고, 학예회 때 서예 작품도 하고, 학교 축제에 참가하고... 그는 여는 여고생 못지 않은 학창생활이 마냥 즐거웠다고 한다. 이같은 모범적인 학창 생활 덕에 이번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특별상’을 받게 됐다.

임씨는 나주의 부자집 딸(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큰 오빠를 대학원까지 보낼 정도로 집안은 풍족했지만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터진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3남1녀의 자녀를 뒀다. 대학교수인 큰 아들을 비롯해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자랄 땐 전쟁의 소용돌이와 여자라는 이유로, 커서는 아이들 키우느라 공부하는 엄두도 못냈어. ‘딸 신세 어떻게 하려고...’라며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지.” 그렇게 원망이 억어 한(恨)이 됐고 그 한은 다시 배움의 열망으로 되살아났다. 그래서 그는 검정고사로 초등 과정을 마치고,

주부·만학도 등 성인들이 다니는 광주시 동구 내남동 진명중학교(2년제 6학기)를 거쳐, 광주 대신고에서 당당히 고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

“나 같은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기에 교육청에 물었어. 그런 학교가 문도 열지 않았을 때야. 소식만으로도 너무 기뻐 공사 중인 학교를 찾아 둘러보고 눈물을 쏟았어.”

임씨는 2007년 겨울 처음 학교를 찾았을 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희를 훌쩍 넘겨 손자 손녀를 여덟명이나 둔 할머니 여고생 임씨. 그는 사회복지사로 2막 인생을 꿈꾸며 오는 3월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09학번 새내기로 새출발한다. 박종연 교감은 “고희를 넘긴 나



이임에도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모범생이었다”며 “어렵게 응기를 다 졸업이라는 열매를 맺은 만큼 언제 어디서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고 응원했다.

광주 대신고는 만학도·주부 등 배움의 기회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학교로,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2년제(1년 3학기) 정식 고등학교다. 24일 임씨를 포함해 2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입학 문의의 (062)376-84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 수산물 북한산 둔감 광주·전남에 대량 유통

마산세관은 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감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로 수산물 무역업자 A(49)씨를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산 민물새우와 참게 등을 북한산으로 서류를 꾸며 수입한 뒤 광주·전남지역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수산물 300여을 들여와 4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가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검사가 수월한 데다 시중 판매시에도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국 수산물 수입액과 공모해 중국세관의 수출입신고서까지 위조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원상치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국업자들에게 오히려 속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나원침 (7734) 김중두



전남대 총동창회장 최상준씨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29대 회장에 최상준(사진) 남화토크인 부회장이 선출됐다. 최 회장은 1964년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남화토크인 대표이사, 전남대 경영대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총동창회 감사에는 최병선 목포 동명회계법인 회계사와 손창환 한국공인회계사 광주지회장이 선임됐다.

회장 취임식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서구 삼무지구 예술의전당에서 동문과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만취 난동 2명 상해

초등학교 교사 입건

나주경찰은 19일 만취 상태에서 흥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지 초등학교 교사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모영농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종업원 2명에게 흥기를 휘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B씨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려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곧바로 퇴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애인의 가족과 영농법인의 투자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친 빚 갚으려 주점 물품 훔쳐

신변비관 시청 공무원 아들 묘 옆에서 자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광주시청 공무원이 아들의 묘 옆에서 목숨을 끊었다.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9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김모(51)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동생(50)이 발견했다.

김씨는 20년 전 사망한 아들의 묘 옆에서 숨겨 있었으며, 김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이 발견됐다. 김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해 11월 휴직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접수 후 광주·전남권 택시 580대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접수 후 광주·전남권 택시 580대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중흥기자 golee@kwangju.co.kr

겨울 황사 공습

광주·전남 올 첫 주의보 ... 휴일엔 비

20일 광주·전남지역에 때 이른 황사가 찾아오면서 올 들어 첫 황사주의보가 발령됐다. 2002년 황사 특보제도 시행 이후 2월에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황사는 밤사이 차차 사라져 주말 날들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났다”며 “이번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된 것으로 밤사이 사라지겠다”고 예보했다.

20일 오후 5시 현재 황사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496 μ m³, 흑산도 473 μ m³, 진도 430 μ m³ 등이며 5시 현재 광주·전남 전지역엔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황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외출하는 등 잔뜩 웅크린 모습을 보였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여수시, 목포시, 해남군 등 전남지역 7개 시군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전해상엔 풍랑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 20일 오전 바람이 찾아들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풍랑주의보는 해제될 전망이다. 주말인 21일 광주·전남지역은 황

사가 사라지면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다.

휴일인 22일 광주·전남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5~30mm. 기상청은 목포시와 여수시 등 남해안 지역엔 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휴일 광주의 기온은 3~8도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치매 앓던 독거노인 전기장판 화재 숨져 전기장판 화재 숨져

치매를 앓던 독거노인이 전기장판 화재로 숨졌다.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9일 밤 8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A씨(69)의 집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가 숨졌다.

A씨는 15년 전부터 폐지를 모아 판 등으로 생활해왔으나 1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에 걸려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생활하던 방안 전소된 점으로 미뤄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나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중흥기자 golee@



“환경미화원이 되고 말거야” 20일 광주 북구 일곡근린공원에서 열린 북구청 환경미화원 체력검정에 도전한 남성 3명이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3명을 뽑는 이날 시험에는 여성 응시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02명이 도전, 31명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력 미달 0%’ 광주 초등 14곳 재조사

대구서도 17명 누락 ... 교과부, 시·도교육청 전면 감사

전북 일실에 이어 대구에서도 17명의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0%’로 보고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오는 23일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180개 교육청,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감사에 들어가는 한편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초등학교는 동부 교육청 관내 3곳, 서부 교육청 관내 11곳 등 모두 14곳이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5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 교육청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광주지역은 초등학교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는데도, 특정 학교에서만 0%가 나온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밖에 중학교 가운데는 광산구에 있는 농어촌 학교 1곳만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등학교는 여학교 4곳, 남학교 1곳, 남녀공학 1곳 등 6곳이 1~3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0%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女승객 상습 성폭행 택시기사 검거

광주광산경찰, 30대 2명 한 달 새 7차례 범행

심야시간대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달 새 무려 7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0일 영일읍 택시 운전하면서 흥기로 여성 승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이모(34·광주시 서구 농성동)씨와 L모(33·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통신 설비업체에서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씨 등은 19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승객 Y(여·25)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에서 2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25일 새벽 3시께 광산구 우산동 S아파트 인근에서 K(여·19)양을 성폭행하고, K양의 체크카드를 현금 6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한 달 사이 7차례에 걸쳐 이같은 짓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통신 설비업체에서 4년간 근무한 이씨는 범행 당시 일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방인 L씨를 택시 뒤 트렁크에 태우고 다니며 손쉽게 피해자들을 제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25일 첫 피해신고 접수 후 광주·전남권 택시 580대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Today's weather forecast for K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data for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